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

교황 성모 대성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봉헌된 첫 성전으로서, 에 페소 공의회의 영광이요 찬미이며, 오랜 세월 동안 성모님의 영적축복을 받기위해 찾았던 하느님의 백성과, 특히 로마 교황들의 신심으로 찬란히 빛났다.

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과 영적인 유대를 새롭게 하기 위해 교황청 내사원에 청 원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, '영적 유대의 거룩한 장소'로 지정된 이곳에서 아래와 같 이 실천하는 이들은 성모 대성전에서 누리는 전대사를 받게 된다.

- 1. 리베리오 성모 대성전 주보 축일, 즉 8월 5일
- 2. (특별한 영적 유대를 가진) 그 성당의 주보 축일
- 3.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든 대축일
- 4. 1년에 한 번, 어느 날이든 신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날
- 5. 신자들이 (성모) 신심의 이유로 단체로 이곳을 순례할 때마다
- 이 전대사는 수원교구의 남양에 위치한 로사리오의 (복되신 동정 마리아)께 봉헌된 순례지에 통상적인 조건 아래에 기꺼이 수여된다.
- 이 성당(남양성모성지)는 합법적으로 대사를 수여하는 교황청 내사원의 문서와 함께, 성모 대성전의 현판에 기록되었다.
- 이 문서를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이를 알아 신심이 증진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수여한다.

로마에서 2009년 3월 17일

리베리노 교황 대성전 수석사제 버나드 프란시스 로 S.R.E 추기경 위임참사 치로 보벤지 몬시뇰

